총16호 KOREAN STUDIES

조선-한국학연구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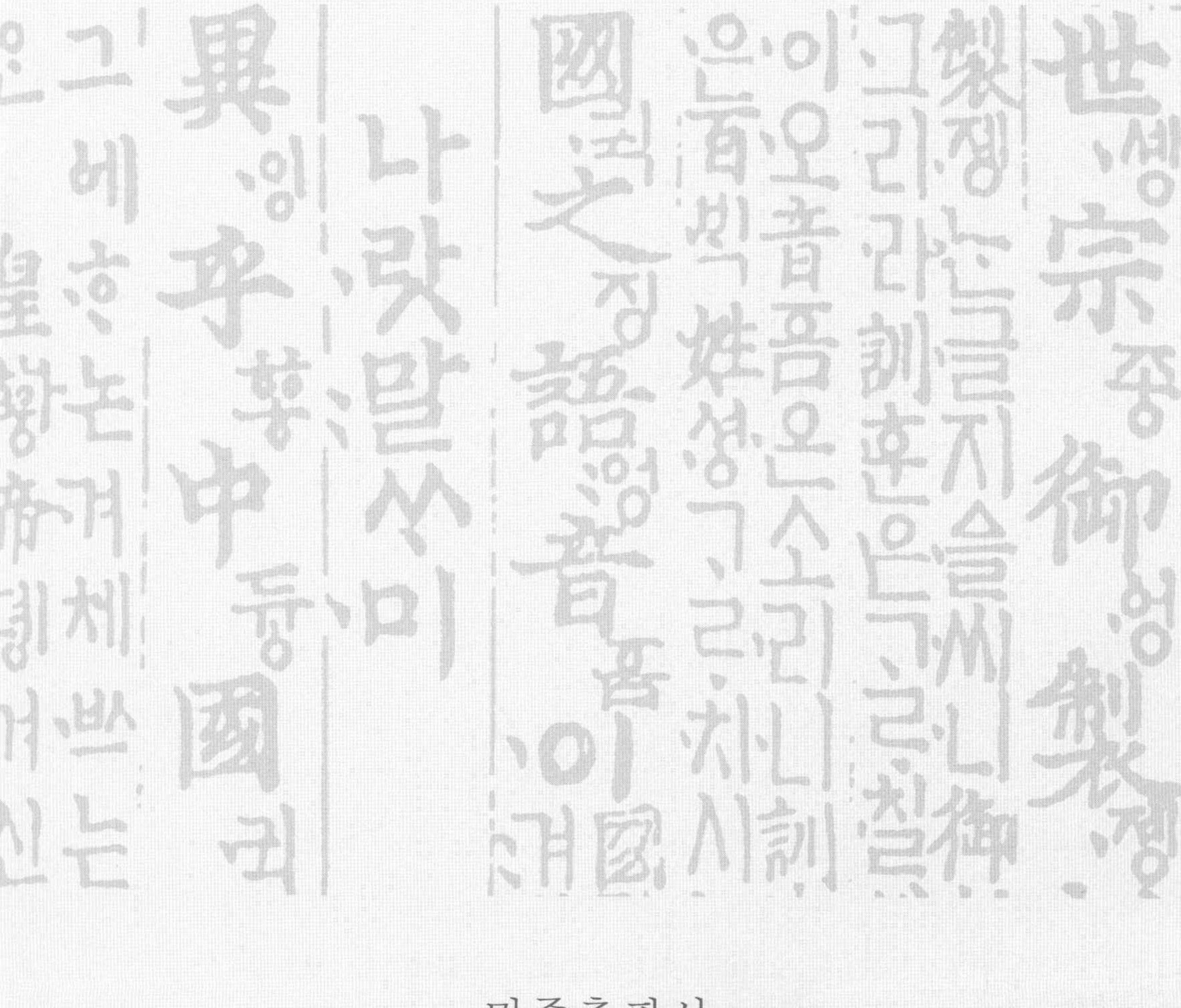
중앙민족대학 조선-한국학연구소

민 족 출 판 사

총16호 KOREAN STUDIES

조선-한국학연구

(2006)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朝鲜—韩国学研究. 2006： 朝鲜文 /中央民族大学朝鲜—韩国学研究所编著. —北京： 民族出版社, 2008. 4

ISBN 978-7-105-09229-1

Ⅰ. 朝… Ⅱ. 中… Ⅲ. ①朝鲜语 -研究 -文集 ②文学研究 -朝鲜 -文集 -朝鲜语 ③文学研究 -韩国 -文集-朝鲜语 Ⅳ. H55-53 I312.006-53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8)第051557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mzcbs.com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8年4月第1版 2008年4月北京第1次印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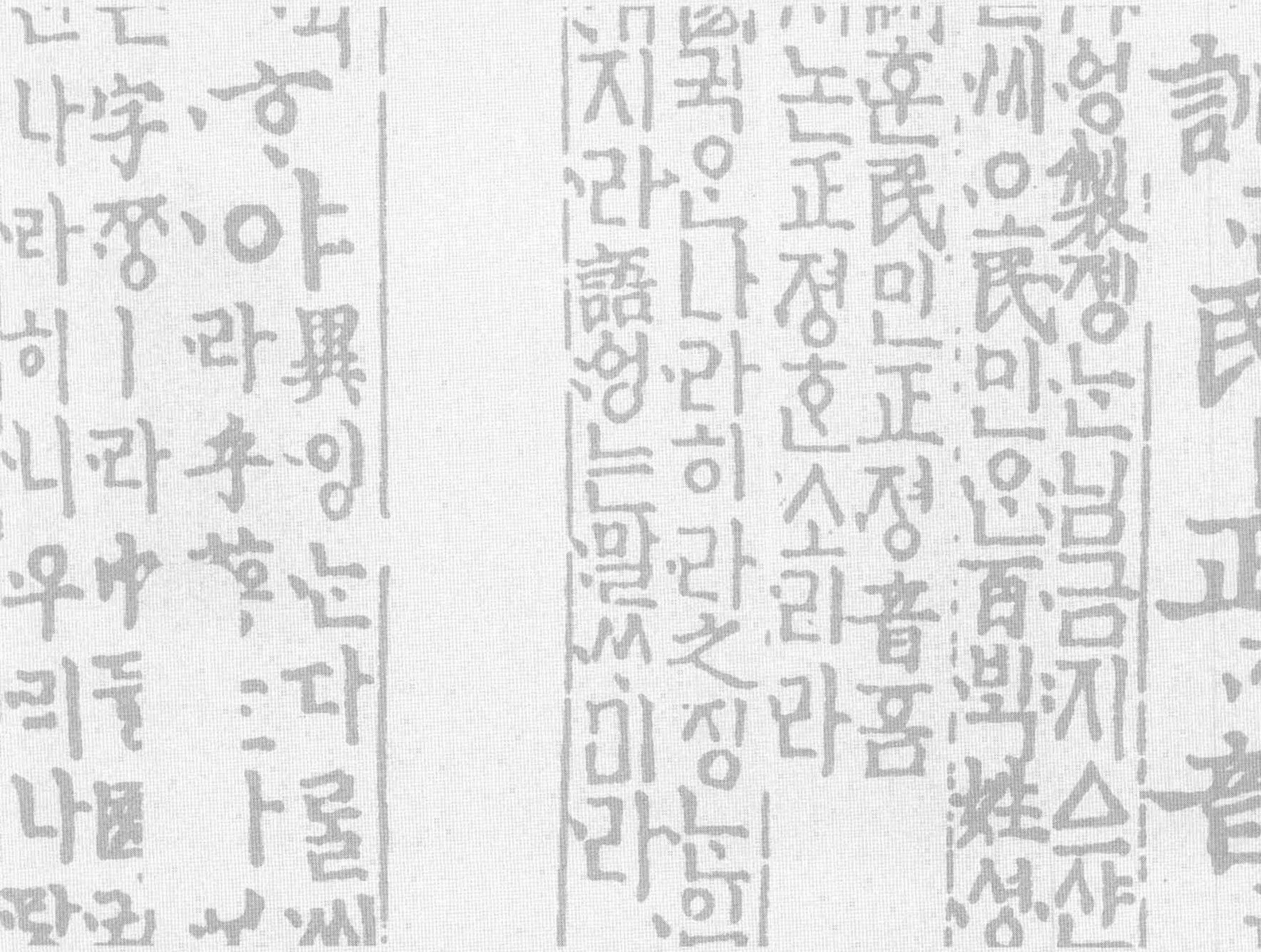
开本: 787毫米×1092毫米 1/16 印张: 28

字数: 455千字 定价: 36.00元

ISBN 978-7-105-09229-1/Z·1360(朝61)

(朝文室电话: 58130534; 发行部电话: 64211734)

이 학술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후원으로 간행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깊은 사의를 표시한다.



머 리 말

중국과 한국이 수교한지도 어언 1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조선-한국학연구소도 중한수교에 힘입어 1992년에 설립되여 15년을 겪어오면서 이미 15집의 론문집을 출판하였고 국제학술회의도 10차례 해왔다. 중한수교와 함께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는 연구소이다. 우리 연구소가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는것은 중한수교 및 그 발전의 덕을 본것이고 많은분들의 가르침과 도움의 힘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07년에 우리 조선-한국학연구소는 한국의 해외한국학 중핵대학에 선정되여서 또 많은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이 역시 국내외 많은분들의 아낌없는 도움이 있었기에 이루어진것이다. 우리는 그 배려에 부끄럽지 않게 해나갈것이며 중국에서 한국학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기 위해 모든 힘을 가할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많은 교류는 번역을 떠나서는 이루어질수 없다고 생각한다. 근래에 와서 중한, 한중 번역은 더없는 발전을 이루었는바 우리는 그 성과들을 더욱 빛내기 위하여 통번역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를 조직하였다. 중한교류가 심화되면서 통번역과 관련된 연구성과들을 교류하고 새로운 연구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모임이였다고 생각한다.

지난 2007년은 우리 학교 대학평가가 있은 한해였다. 연구소의 많은 분들이 그 평가에 필요한 문서들을 작성한다고 방학도 없이 일을 해왔다. 그럼에도 론문을 정리하여 보내주신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학교의 행사로 원고를 계속 미루어도 기꺼이 받아주신 민족출판사 조선문편집실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항상 고마운분들이다.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이 론문집이 여러분이 학술정보를 교류하고 정을 나누는 만남의 장으로 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앙민족대학 조선-한국학연구소

2008년 3월

차 례

○ 언어

품사 분류에서 제기되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단어들에 대하여 ····· 강은국(1)
중국 조선족의 시각으로 보는
  《겨레말큰사전》 ····· 태평무 박귀화(23)
한국어 교육 문법에서의 '의존구성' 개념 및
  교육 항목 ····· 박문자(36)
이름에 반영된 조선민족의 문화적요소 ····· 강용택(51)
연변지역 조선족 중학생들의 언어사용실태 조사 ····· 박순희(63)
"이다"의 연원 및 그 품사적성격에 대한 고찰 ····· 하성금(75)
중한 통신언어의 특징과 그 대응 관계 분석 ····· 진치국(85)
한국어 '머리'와 중국어 '头'의 의미 확장 대조 ····· 전금희(99)
한국어 강세 발음 교육 연구 ····· 박해연(117)
해방후 북경시 조선족 대학생 이름에 대한
  약간한 고찰 ····· 김춘매(132)
한조번역에서의 문자정보와 장면정보의 상호전환 및
  그 운용에 대한 일고찰 ····· 남복실(144)
朝汉双语语码转换对朝鲜语部分功能的影响 ····· 安美英(153)

○ 문학

조선고대신화에서의 자연물, 자연신의 상징적의미 ····· 문일환(170)

문학모티프의 형성요인인 집단(민족)무의식과
문학모티프의 심미적작용에 대하여 ····· 리원길(194)
20세기 50년대 한국문학을 통해 본 대미의식 ····· 김춘선(222)
재만조선인 시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적 특징 ····· 오상순 리연단(234)
'해골둔갑여우' 설화의 비교적 고찰 ····· 황인덕(247)
한설야 초기 단편소설의 사실주의특징 신론 ····· 김명숙(266)
한국 탈춤 小考 ····· 김예령(281)
청각적리듬의 시각적변이 ····· 전춘매(296)
리원길과 고효성 소설에서의 농민형상 비교 ····· 문 화(309)
한국 1920년대 자연주의의 의미 ····· 최유학(323)
장편소설 《땅》과 《폭풍취우》의 부동한 인물묘사
치중점에 대하여 ····· 최성학(335)
1950년대 후반기 조선족소설에 나타난 참사실주의 ····· 서 연(348)
중한 망부형(望夫型)전설에 대한 약간한 고찰 ····· 리일매(358)
하근찬의 《수난이대》의 서사공간에 대하여 ····· 리호옥(370)

○ 기타

중한 도교사상 비교연구 략론 ····· 김경진(384)
중국의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특성 ····· 강기주(397)
民歌魂 ····· 贺露露(415)
韩国电影产业借鉴 ····· 李海英(431)

품사 분류에서 제기되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단어들에 대하여

복단대학교 강은국

1. 서론

이른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단어란 한 언어에서 어느 한 부류의 품사에 소속되면서도 의미-기능적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품사적 특성을 갖고 쓰이는 단어들의 부류를 가리킨다. 예컨대 영어의 'to think', 'to imagine', 프랑스어의 'lire', 'parler' 등과 같이 동사에 소속되면서도 문법적 기능에 있어서는 명사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이른바 동명사나 일본어의 'おだやか', 'いだい' 등과 같이 형용사에 소속되면서도 동사적 특성도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형동사, 그리고 러시아어의 'ЧИТВШИЙ', 영어의 'sleeping' 등과 같이 동사의 일종으로서 동사와 형용사의 특징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동형사(어떤 학자들은 동형사를 '형동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본어의 형동사와는 다르다.) 등과 같은 단어들이 바로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단어들이다.

한국어에도 이런 부류의 단어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예를 들면 명사 '개막'은 "인민대표대회의 개막을 열렬히 환호한다.", "인민대표대회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개막."에서와 같이 일정한 격형태를 취하고 명사로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행태도 취하지 않고 술어로 쓰이면서 동사처럼 장소나 정도를 나타내는 상황어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다 같은 명사에 속하는 '부족'은 '개막'과는 달리 "그들은 생활에서나 학습에서 아무런 부족도 없이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 "어린애들의 성장에 영양이

대단히 부족."에서와 같이 명사의 성격과 형용사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쓰인다.

다음으로 형용사 '밝다'는 "방이 매우 밝다."에서처럼 정적인 상태를 나타내면서 형용사로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이 점점 밝는다."에서처럼 과정적인 행동을 나타내면서 동사로도 쓰일수 있다.

그 다음으로 동사 '거물거물하다'는 "불빛이 거물거물하다가 힘없이 스러졌다."에서와 같이 어떤 과정적 행동을 나타내면서 동사로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물거물하게 멀리 보이는 불빛"에서처럼 어떤 정적인 상태를 나타내면서 형용사적으로도 쓰인다. 그런데 다 같이 동사에 속하는 '집결하다'와 같은 단어들은 위의 동사와는 다른 이중적 성격을 보이고 있는데 "대오가 강가에 집결했다.", "소대장은 [대오를] 강가에 집결했다."에서와 같이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격형태를 취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자동-타동성만을 달리하고 있다.

이상의 고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단어들의 부류는 각이한 민족어에 거의 정도 부동하게 발달되어 있으며 또 많은 부류의 품사들에서 이런 부류의 단어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단어들에 대한 연구는 한 언어의 품사 분류에서는 물론 언어 사용과 언어 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방면의 논의는 깊이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에 발달되어 있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단어들의 특성을 유형별로 밝히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삼는다.

2.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단어들의 산생 원인

한국어에서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일련의 특성을 옳게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단어들의 산생 원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한 단어의 어휘-문법적 특성은 그 단어의 변화 발전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단어들의 산생 원인과 그 발달 도경은 언어에 따라 부동할 수 있는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주되는 요인이라 생각된다.

첫째, 다른 언어, 특히는 한어(漢語)에서 많은 단어들을 차용해 들여오는 가운데서 이중적 성격을 띤 단어들이 많이 산생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어 어휘 구성 속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데 그중의 절대다수가 한어에서 직접 차용해서 들여온 것들이다. 이리하여 만약 단어 차용이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단어들의 산생과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것은 주로 한어의 영향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단어 차용이 한 언어의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단어들의 산생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하게 되는가?

주지하다시피 단어 차용에서 차용된 단어는 원 언어의 특성을 갖고 다른 언어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언어에 차용된 후에는 그 언어의 특성에 맞게끔 자기의 성질을 개변시키면서 새롭게 적응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차용된 단어들은 '보존'과 '적응'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투쟁'을 벌이게 되며 이 투쟁의 결과에는 일반적으로 차용된 언어적 성분이 차용한 언어에 적응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차용어들이 모든 경우에 자기의 원래의 특성을 깡그리 버리고 순순히 새 언어에 적응되는 것은 아니다. '적응'과 '보존'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모든 차용어들은 새 언어에 적응될 때 언제나 자기의 원래의 일부 특성을 보존하면서 적응하게 된다. 예컨대 '태양(太陽)', '만(萬)' 등과 같은 차용어들은 한어에서는 형태 변화를 하지 않는 단어들이었지만 한국어에 차용된 후에는 형태 변화를 하게끔 되었다. 이것은 적응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런 차용어들은 단순히 한국어에 적응만 된 것이 아니다. 이런 차용어들은 한국어에 들어온 후에도 자기의 원래의 품사적 속성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즉 위에서 든 단어들은 한어에서 각각 명사, 수사였는데 한국어에 들어온 후에도 여전히 명사, 수사로 되고 있다. 이것은 보존의 표현이다.

이렇게 적응과 보존은 언제나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조건적이다.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만약 차용어가 자기의 모든 언어적 특성을 그대로 보존할 것을 고집하면서 차용한 언어에 조금치도 적응하지 않을 때에는 이런 차용어들은 차용한 언어에서 밀려나게 되며 만약 적응의 요구가 차용어에 합리적일 경우에는 차용어는 새 언어에 기꺼이 순응하면서 차용한 언어의 단어체계를 충격하지 않지만 이와는 반대로 적응의 요구가 지나치게 무리할 경우에는 차용어는 강박에 못 이겨 순응할 수는 있지만 차용한 언어의 단어체계를 충격하는 수가 있다. 예컨대 한국어에서 한어의 명사와 같은 단어들을 차용할 때에는 이런 차용어들로 하여금 원래의 품사적 속성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형태 변화에서만 한국어의 특성에 적응될 것을 요구한 결과 이런 차용어들은 이 요구에 기꺼이 순응하였으며 또 한국어의 명사체계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한어의 동사와 형용사를 차용할 때에는 이런 차용어들의 품사적 속성마저 한국어의 명사로 적응될 것을 강요한 결과 이런 차용어들은 핍박에 못 이겨 이 요구에 따르긴 했지만 자기의 본질적 속성인 동사, 형용사로서의 의미-기능적 특성만은 완전히 한국어에 적응시키지는 않았다.(이것이 본질적 속성인 이상 완전히 적응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결과 한국어 명사체계 속에는 명사로서의 특성과 동사로서의 특성을 다 같이 소유하고 있는 단어들의 부류와 명사로서의 특성과 형용사로서의 특성을 다 같이 소유하고 있는 단어들의 부류가 새롭게 나타나게 되었으며 또 이로 하여 원래의 한국어 명사체계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상의 사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어 차용에서 적응과 보존은 서로 대립되면서도 서로 통일되는 한 쌍의 모순체로서 이 양자의 모순투쟁은 불가피적으로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일부의 단어들을 산생하게 된다. 한국어에서 명사로서의 특성과 동사로서의 특성을 다 같이 소유하고 있는 "거행(擧行), 건설(建設), 관심(關心), 달성(達成), 보위(保衛), 실천(實踐), 연습(練習), 완성(完成), 정돈(整頓), 토론(討論), 투쟁(鬪爭), 학습(學習)" 등의 단어, 명사로서의 특성과 형용사로서의 특성을 다 같이 소유하고 있는 "간고(艱苦), 고유(固有), 곤란(困難), 다양(多樣), 다행(多幸), 부족(不足), 우세(優勢), 필요(必要)" 등의 단어들이 이렇게 산생된 것들이다.

둘째, 단어들의 의미의 변화에 의해서도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단어들이 산생된다.

단어들의 의미라 할 때는 순수한 어휘적 의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휘-문법적 의미를 가리키는 것만큼 단어들의 의미 변화도 단어들의 어휘-문법적 의미의 변화를 가리키게 되는데 여기에는 주로 단어의 의미 축소와 확대 두 가지가 포함되게 된다. 언어의 전 역사적 발달행정에서 볼 때 단어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어떤 것은 버리거나 원래 없던 어떤 새로운 의미를 더 획득하면서 부단히 변화 발전하고 있다. 단어의 의미의 이와 같은 부단한 변화 발전은 기필코 단어들의 속성의 변화에까지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동사 '살다'는 15세기 문헌에서만 해도 "請드른 다대와 노니샤 바눌 아니 마치시면 어비 아ᄃᆞ리 사ᄅᆞ시리잇가", "請으로 온 예와 싸호샤 투구 아니 밧기시면 나랏 小民을 사ᄅᆞ시리잇가"(룡가: 5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대어의 '살다'와 '살리다'의 두 뜻을 갖고 쓰였으나 현대어에 와서는 '살리다'의 뜻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즉 '살다'의 의미는 원래보다 축소되었다. 그 결과 동사 '살다'의 품사적 속성도 변화되었는바 원래의 자동-타동성을 다 갖고 있던 즉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던 단어로부터 자동성만 갖고 있는 단일한 성격을 띤 단어로 되었다. 또 예를 들어 현대어에서는 '몸에 살이 많다'의 뜻으로만 쓰이는 '살지다'는 고대어에서는 "술진 아ᄃᆞ른"(두해 4:5), "노픈 ᄀᆞ올히 ᄆᆞ리 술지고"(중두해 4: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몸에 살이 많다.", "몸에 살이 오르다."의 두 뜻으로 쓰이었다. 여기서도 '살지다'는 그 의미가 축소되면서 원래 형용사-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던 이중적 성격을 띤 단어로부터 단일한 성격을 띤 형용사로 그 속성이 변하였다.

이런 정형은 단어들의 의미의 확대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동사 '달리다'는 고대어에서는 "ᄃᆞᆯ이ᄂᆞᆫ ᄆᆞᆯ ᄐᆞ니"(두해 25:45), "두 性이 ᄀᆞᆯ와 ᄃᆞᆯ여"(두해 10:3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언제나 "빠른 속도로 가거나 오거나 하다"의 한 뜻으로만 쓰였으나 현대어에 와서는 "말이 빨리 달린다.", "그는 채찍을 휘두르며 말을 달렸다."에서와 같이 "빠른 속도로 가거나 오거나 하다"와 "빠른 속도로 가거나 오게 하다"의 두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달리다'는 그 의미가 확대되면서 원래의 단일한 성

격을 가진 자동사로부터 오늘의 자동성과 타동성을 가진 동사로 그 성질이 변했다.

이상의 사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어들의 의미의 변화에 의하여 일부 단어들의 성격도 변화될 수 있는데 의미의 축소에 의해서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던 단어들이 단일한 성격을 띤 단어로 그 성질이 변화될수 있고 의미의 확대에 의해서는 단일한 성격을 갖고 있던 단어들이 이중적 성격을 띤 단어로 그 성질이 변화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 둬야 할 것은 단어들의 의미의 확대에 의하여 모든 단어들의 성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단어들의 성격이 반드시 이중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단어의 의미 확대가 단어의 성격을 변화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렇게 확대된 단어들의 의미의 분화 정도에 달렸다. 즉 단어들의 의미 분화가 일정한 정도로 된 전제 조건하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그렇다 하여 의미 분화가 크면 클수록 좋다는 말이 아니다. 만약 의미 분화가 지나치게 되면 이런 분화된 의미는 독자적인 서로 다른 의미로 되어 버리기에 한 단어의 이중적 성격을 논할 수 없게 된다.

셋째, 한국어 고유의 단어 조성의 수법에 의해 새로운 파생어나 합성어가 산생되는 과정에서도 일부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단어들이 산생된다.

한국어 단어 조성 수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접사법과 합성법인데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단어들 중의 일부는 특수한 접사나 특수한 어근의 합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예컨대 "기계화, 지식화"와 같은 명사나 "회칠하다, 인두질하다"와 같은 동사의 산생이 바로 이런 경로를 거쳤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계'나 '지식'과 같은 단어들은 대상성의 뜻만을 갖고 있는 단어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 행동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단어에 대상화된 행동성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접미사 '-화'가 붙으면 대상적 의미와 함께 행동성의 의미도 나타내는 단어로 그 성질이 바뀌게 된다.

① '기계화'

○ 농업의 기계화를 다그친다.(명사적으로 쓰였음)

○ 이 마을에서는 밭갈이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을 전부 기계화.(동사적으로 쓰였음)

② '지식화'

○ 노동계급은 마땅히 지식화를 해야 한다.(명사적으로 쓰였음)

○ 간부들은 물론 일반 군중도 마땅히 지식화.(동사적으로 쓰였음)

한국어에서는 대상성만 나타내던 적지 않은 순수한 명사들이 접미사 '-화'의 첨가에 의해 대상성과 함께 행동성도 나타내는 이중적 성격을 띤 단어로 발달되었다.

동사 '회칠하다'는 현대어에서 자동성과 타동성을 다 같이 소유하고 있는 단어들인데("우리는 벽에 회칠했다."[자동성], "우리는 벽을 회칠했다."[타동성]) 이 동사가 이중적 성격을 갖게 된 것은 앞에서 본 '지식화'나 '기계화'가 이중적 성격을 띤 것과는 좀 다른 발달 경로를 보이고 있다. '회칠하다'는 처음부터 하나의 동사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근대에 와서 하나의 단어로 된 것이다. 이 동사는 지난날에는 '회를 칠하다'와 같은 두 개의 단어, 즉 직접보어와 타동사의 연결로 된 단어결합이었었다. 이 경우의 '칠하다'는 고대에도 그랬거니와 지금도 타동사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던 것이 이 단어결합체가 언어 발달 행정에서 하나의 단어로 융합되어 동사로 된 후에는 원래 갖고 있던 타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보존함과 동시에 자동사의 성격을 더 획득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이 무엇때문에 이중적 성격을 띠게 되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딱히 찍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개는 원 동사의 품사적 특성과 문장구조의 특성을 다 같이 보존해 보려는 지나친 의욕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이 원 품사적 특성과 문장구조의 특성을 동시에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벽에 회를 칠했다."에서와 같이 대격 형태로 된 직접보어와 함께 여격 형태로 된 간접보어도 함께 가질 수 있어야 하겠는데 합성어로 변화된 오늘에 와서는 한 문장구조 속에서 이와 같은 두 개의 보어를 동시에 가질 수 없게 되니 경우에 따라서는 대격 형태로 된 보어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이 단어들이 자체의 고유의 특성을 어떻게 하나 보존하려는 의욕에서 온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부류의 단어들이 이중적 성격을 띠게 된 것은 단어 조성 과정에

서 이루어진 것만은 틀림없다.

이상의 사실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한국어 고유의 단어 조성 수법에 의해 새로운 단어가 조성되는 과정에서도 일부의 단어들이 이중적 성격을 띠게 된다.

3.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단어들의 부류와 그 특성

한국어에서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단어들은 그 이중적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류로 나뉠 수 있다.

1) 동명사

이른바 동명사란 대상성의 의미와 함께 행동성의 의미도 나타내면서 문장 속에서 명사로서의 기능과 동사로서의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는 명사의 한 부류를 가리킨다.

한국어 동명사는 다른 일련의 품사들과는 다른 자체의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제 특성을 밝히기에 앞서 한국어의 동명사는 명칭상에서는 영어나 프랑스어에서 말하는 동명사와 꼭 같지만 실질상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데 대해 먼저 언급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 이들의 차이는 영어나 프랑스어의 동명사는 동사의 일종으로서 동사적 성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데 반하여 한국어 동명사는 명사의 일종으로서 명사적 성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데 있다. 즉 영어나 프랑스어의 동명사는 어근이 나타내는 어휘적 의미는 '동작(또는 행동)'이나 그 기능에 있어서는 이 '동작'을 명물화해서 명사적으로 쓰는 동사의 특수한 한 부류이나 한국어 동명사는 어근이 나타내는 어휘적 의미 자체가 대상성과 행동성으로 동시에 특징지어지면서 문장 속에서 동사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명사의 한 특수한 부류이다.

그럼 아래에 한국어 동명사의 특성에 대한 고찰로부터 한국어 동명사가 다른 언어에서 말하는 동명사와 구별되는 점들에 대해서 진일보 밝혀보기로 하자.

첫째, 한국어 동명사는 의미론적 측면에서 대상성과 행동성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이 점은 한국어 동명사가 다른 언어의 동명사와 구별되는 가장 뚜렷한 표지의 하나이다. 한국어 동명사는 다른 언어에서처럼 의미론적 측면에서는 행동성으로 특징지어지다가 문법적 측면에서 대상화되는 것도 아니며 또 의미론적 측면에서는 대상성으로 특징지어지다가 문법적 측면에서 행동화하는 그런 단어의 부류가 아니라 의미론적 측면에서 우선 이 양자를 겸하여 나타내고 있는 특수한 단어의 부류이다. 이와 같은 의미론적 제 특성은 사전 올림말에서의 의미 주석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예를 들면 동명사 '보도'에 대한 사전들의 의미 주석은 대체로 "어떤 소식을 일반에게 전하여 알림, 또는 그 소식"으로 되어 있다. 사전 올림말의 의미 주석이 이러할 뿐만 아니라 문장 속에서 쓰일 때에도 그 어음 외피를 달리하지 않고서도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 너 신문사에서 요구하던 보도를 다 썼니?(소식)

○ 기자들이 어제 노동자문화궁전에서 5·1 기념보고회가 있었다고 보도.(알림)

여기서 우리는 한국어 동명사는 의미론적 측면에서 대상성의 의미와 행동성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명사가 나타내는 이런 대상적 의미와 행동적 의미를 모든 동명사가 균등하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앞에서 살펴본 '보도'에서는 대상적 의미와 행동적 의미가 모두 뚜렷이 드러나고 있지만 '건립'과 같은 단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건립'의 사전 의미 주석은 대체로 "① (탑, 동상 등을) 만들어 세움. ② (기관, 조직체 등을) 새로 조직함."과 같이 되어 있는바 대상성의 의미보다는 행동성의 의미를 더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이런 단어들은 문장 구조 속에서만이 그 대상적 의미가 파악되게 된다.(과학원의 건립을 열렬히 축하한다.)

이리하여 한국어 동명사들은 의미론적 측면에서 대상성과 행동성의 의미를 보다 뚜렷이 나타내는 한 부류와 대상성의 의미보다는 행동성의 의미를 더 뚜렷이 나타내는 다른 한 부류로 나뉘게 된다.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